

VI. 프린스턴 학파와 성서무오류설

1. 19세기 주관주의적 신학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프린스턴 신학

1) 객관주의적 신학(objective theology)

19세기의 시대정신이 “주체로의 전환”이듯, 이 당시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주관주의적 신학(subjective theology)이라고도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미국에서 보다 객관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프린스턴 신학이다.

2) 네 신학자들: Archibald Alexander (1772-1851), Charles Hodge (1797-1878), Archibald Alexander Hodge (1823-1886), Benjamin Breckinridge Warfield (1851-1921). 이렇게 미국 교회의 토착적이고 고백적인 운동으로 등장한 프린스턴 신학은 대체적으로 1812년에서 1921년 사이에 프린스턴 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가르쳤던 네 명과 관련이 된다.

2. 역사비평방법에 대한 당시 미국의 상황

역사적 예수와 역사비평방법론은 19세기 개신교 신학사상의 중심에 놓여있었다. 유럽 대륙에서는 신약의 예수에 대한 진술들이 대부분 신화적이고 따라서 역사비평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스트라우스(David Friedrich Strauss)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대부분의 논쟁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역사비평방법론을 두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근본주의 신학자들 사이에 가장 날카로운 대립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독일의 학문적 발전에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현대적 사상과 필요에 적용시키는 것은 당연히 미국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이고, 이단 재판의 시대는 끝났다고 확신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을 지녔던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던 스윙(David Swing)은 1874년에 “그가 성서의 완벽한(plenary) 영감을 믿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이단 재판을 받게 된다. 스윙은 결국 장로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어지는 논란들의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공개적인 이단 재판들을 통해 교회에서 쫓겨나가거나 신학교 교수직에서 해임된다. 이러한 장로교 전통의 중심에는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의 찰스 하지와 그의 후계자였던 워필드가 주장한 성서의 무오류설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입장은 1892년 총회에서 받아들여지고 1893, 1894, 1899, 1910년 총회에서도 다시 재확인된다.

가장 유명했던 이단 재판 중 하나는 유니언 신학교의 성서신학 교수였던 브리그스(Charles A. Briggs) 교수가 자신의 취임연설을 둘러싼 2년간의 논란 끝에 장로교 사역에서 정직되어진 것이다. 그의 동료였던 구약성서학자 스미스(Henry Preserved Smith)는 시카고의 레인(Lane) 신학교에서 해고된다. 유니언 신학교의 교회사 교수로서 신약성서를 다루었던 맥기퍼트(Arthur C. McGiffert)는 1900년에 장로교 사역에서 사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논란의 와중에서 유니언 신학교는 1892년에 브리그스 사건의 여파로 장로교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하게 된다.

3. 프린스턴 신학의 세 정신: 성서주의(biblicism), 고백주의(confessionalism), 상식적인 리얼리즘(common-sense realism)

특히 프린스턴 신학교의 창학에 많은 역할을 하였던 알렉산더는 당시의 시대정신이 보여주는 두 가지 위험성을 합리주의(rationalism)와 열광주의(enthusiasm)라고 보았다. 한편으로 18세기의 이신론과 또한 뉴니테리어니즘(Unitarianism)으로 대변되는 합리주의는 이성과 반대되는 계시라는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렉산더는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종교적 열광주의는 성서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개인에게 직접적인 계시가 가능하다는 또 다른 위험성을 제기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1812년까지 미국의 장로교는 목회자들을 양성할 학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러한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1808년 총회에서 설교하면서, 이처럼 당시 시대의 두 가지 주요한 신학적 위험성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Archibald Alexander: “The rationalist will not receive many of the doctrines of revelation because they do not accord with his preconceived notions, which he calls the dictates of reason. The enthusiast will not submit to the authority of scripture because he imagines that he is under the direction of a superior guide. The one makes his own reason the judge of what he will receive as true from the volume of revelation; the other determines every thing, whether it relate to opinion or practice, by the suggestion of his fancied inspiration.” (Livingston, 1:302)

이러한 합리주의와 열광주의라는 이중의 위험성에 대해 프린스턴 신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신학적 원칙들을 제시하게 된다.

1) 성서주의(biblicism): 성서의 무오설(the inerrancy of Scripture)

첫째는 성서주의이다. 프린스턴 신학에 따르면, 성서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진리의 근거로서, 모든 실수로부터 자유로운 권위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성서의 기록자들이 성서를 기록할 때에 그 모든 사상이나 말의 선택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부분들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로부터도 자유롭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기독교 신앙의 전체는 성서의 무오설(the inerrancy of Scripture)에 기초하고 있으며, 여기에 의존한다고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보았던 것이다.

2) 고백주의(confessionalism):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 (Francis Turretin, 1623-1687)

둘째,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보수적인 칼빈주의의 교리에 대한 철저한 수용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들은 17세기 후반에 제네바 신학자 Francis Turretin(1623-1687)이라는 사람에 의해 체계화된 칼빈주의의 교리적 체계를 수용하고 계승하고자 하였다. 즉 칼빈주의 안에서도 다양한 발전이 있었지만,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 특히 터레틴의 교리학적 체계를 규범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나중에 Benjamin Warfield는 터레틴을 가리켜 “개신교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까지 평가하기도 한다.

3) 상식적 리얼리즘

프린스턴 신학을 방법론을 잘 보여주는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상식적 리얼리즘

(common-sense realism)이다. 이러한 그들의 입장은 당시 철학에서 “스코틀랜드 상식적 리얼리즘”(Scottish common-sense realism)이라 알려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프린스턴 신학의 상식적 리얼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진정한 자연과학과 신학은 단지 병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즉 그들은 베이컨으로 상징되는 경험주의 방법론과 뉴턴으로 상징되는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신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자신의 프린스턴 신학과 다른 한편으로 뉴턴적 자연과학이 진리의 측면에 있어 매우 인접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자연과학과 신학의 양립가능성이라는 원칙에 기초했던 프린스턴 신학은 나중에 이른바 자연과학과 신학의 전쟁에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4. Charles Hodge (1797-1878)

1) *Systematic Theology* (1870s): 자연과학과 신학의 유비적 방법론

칼빈뿐 아니라 터레틴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은 하지는 세 권의 조직신학책을 썼으며, 이는 곧 1870년대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공식적 교과서로 사용되며 이전의 터레틴의 조직신학책을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그는 자연과학의 방법론과 신학의 방법론이 유비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았다. 즉 성서는 자연과학처럼 사실들로 가득한 사실들의 책이며, 따라서 신학자의 임무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계시한 이러한 사실들은 귀납적으로 모으고 체계화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The Bible is to the theologian what nature is to the man of science. It is his store-house of facts; and his method of ascertaining what the Bible teaches, is the same as that which the natural philosopher adopts to ascertain what nature teaches.”¹⁾

즉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제 2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성서는 사실들을 모아둔 책이라는 것이다. 둘째, 신학은 이러한 사실들을 귀납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들의 체계는 하나님의 권위있는 계시로서 모든 합리적인 사람들은 모두 동의할 것이라는 신념이다. 우리가 앞에서 이른바 상식적 리얼리즘이라고 부른 정신이 여기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2) 성서의 영감과 성서의 권위

하지의 조직신학은 철저하게 성서에 기초하고 있다. 즉 성서는 모든 사실들의 기록이며, 그 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전체에 있어서 영감받은 것으로 조금도 실수가 없다는 것이다. 곧 그에게 있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성서에 대한 신앙은 거의 구분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1857년 “영감”(Inspiration)에 대한 논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Faith in the Scriptures as the word of God is faith in their plenary inspiration. That is, the persuasion that they are not product of the fallible intellect of man,

1)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1 (1891), 10.

but of the infallible intellect of God. ... In saying that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we mean that he is its author; that he says whatever the Bible says; that every thing which the Bible affirms to be true is true. ... What the Scriptures teach is to be believed, not on the authority of Moses or the prophets, or of the apostles and evangelists, but on the authority of God, who used the sacred writers as his organs of communication. The Bible is the product of one mind.”(Livingston, 1:308)

물론 이러한 성서 이해는 오늘날 성서비평학에서 제기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하지가 성서의 통일성을 강조하지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성서적 메시지가 지닌 다원성과 모호성 (David Tracy, *Plurality and Ambiguity*)을 강조한다. 하지는 성서의 인간 저자들이 단지 하나님의 집필의 기계적 도구라고 제시하지만, 오늘날 성서 학자들은 그들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경제적 환경에 존재하였던 독립적인 저자 혹은 저자의 공동체로서 이해한다. 또한 하지가 성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동일시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신학자들은 이러한 동일화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신학자들의 이에 대한 반발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하지의 다소 비역사적인 성서 해석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의 성서의 무오성에 대한 생각이다. 즉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All Christians in every age and every name have regarded the Bible in all its parts ... as to be infallible and of divine authority. ... Greeks, Romans, and Protestants all agree in saying, that everything in the Bible which purports to be the word of God ... is to be received with the same faith and submission, as though spoken directly by the lips of God himself.” (Livingston 1:308-309)

물론 그리스 정교회, 가톨릭 교회, 개신교 교회 모두가 하지가 생각하듯 성서의 축자적 영감설을 받아들였다는 주장은 분명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많은 비평가들은 하지의 축자적 영감설이 지나치게 영감에 대한 기계적 이해에 기초한 것은 아닌지 비판하였다. 여기에 대해, 하지는 자신이 기계적 영감설을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It [The theory of Inspiration] does not make the writer a machine. It is not a process of dictation. ... The writer retains his consciousness and self-control. ... He speaks and writes as freely and as characteristically as though he were entirely uninfluenced by the Spirit of God. ... It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scriptural theology that a man may be infallibly guided in his free acts.” (Livingston 1:310)

3) 성서의 최초 원본의 무오류설

성서의 축자적 영감설과 무오류설은 하지만 하지를 자연과학의 발견과 다소 어색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만약 성서가 제기하는 “사실들”과 자연과학이 제기하는 “사실들”이 서로 충돌되어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지는 성서가 자연과학의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It [Inspiration] means, first, that all the books of Scriptures are equally inspired. All alike are infallible in what they teach. And secondly, that inspiration extends to all the contents of these several books. It is not confined to moral and religious truths, but extends to the statements of facts, whether scientific, historical, or geographical. It is not confined to those facts the importance of which is obvious, or which are involved in matters of doctrine. It extends to everything which any sacred writer asserts to be true.”²⁾

하지만 자연과학이 발전되어감에 따라 성서의 사실들과 과학의 사실들이 점증적으로 양립불가능하게 보인다. 이에 대해 하지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제안을 하기에 이른다. 즉 성서가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직 성서의 원래 저자들이 직접 쓴 최초의 원본만이 이처럼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성서에 발견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하지는 원본들을 베끼는 과정에서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It is the Bible as it came from the hands of the sacred writers, and of the Bible as properly interpreted, that this infallibility is asserted. There may be discrepancies between one part of the Scripture and another, arising from errors of transcribers. Far more numerous and important difficulties have their origin in erroneous interpretations.” (Livingston 1:311)

이처럼 하지는 영감에 대한 자신의 공개적 글에서 아주 가볍게 성서의 최초 원본의 무오류설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나중에 이는 그의 아들 A. A. Hodge와 후계자 Benjamin Warfield에 의해 중요한 프린스턴 신학의 특징으로 자리잡게 된다.

5. A. A. Hodge and Benjamin Warfield: the “plenary verbal inspiration” of the first original copy

여기서 “plenary”란 단순히 “전체의(full)” 혹은 “완벽한”(complete)이란 뜻이다. 즉 성서의 축자적 영감은 단지 성서의 몇몇 부분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성서의 모든 책들이 그 전체에 있어서 영감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성서비평학자들이 밝힌 성서의 연대들, 저자들, 자료들에 대한 오류들 혹은 난제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하지와 워필드는 찰스 하지의 논리, 즉 최초의 원자자의 원본은 완벽하게 오류가 없었으나, 그것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났다는 논리를 보다 강조하게 된 것이다.

Hodge and Warfield: “Such apparent inconsistencies and collisions with other sources of information are to be expected in *imperfect* copies of ancient writings, from the fact that the original reading may have been lost, or that we may fail to realize the point of view of the author, or that we are destitute of the circumstantial knowledge which would fill up and harmonize the record. Besides,

2) *Systematic Theology*, vol. 1, 163.

the human forms of knowledge by which the critics test the accuracy of Scripture are themselves subject to error.” (Livingston, 1:317-318)

6. 최초 원본의 축자적 영감설 비판자들

1) 증명한 반증도 할 수 없는 이론

첫째로, 비판자들은 최초의 원본의 축자적 영감설은 그것을 증명할 수도 혹은 반박할 수도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한다. 즉 현재 우리는 이러한 원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 성서의 최초의(original) 원본이 아니라, 전해 내려온 사본(received texts)의 중요성

또한 비판자들은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최초의 원래 원본이라는 가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는 다소 왜곡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신앙을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기초 위에 두게 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의 신앙이 최초의 성서 원본이 아니라, 성서의 전해 내려온 사본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언제 최초의 원본이 완성된 것인가?

마지막으로, 비평가들은 최초의 원본이라는 가설이 성경의 형성사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고 경고한다. 즉 성서는 한 번에 완료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수정되고 첨가되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서의 원래 저자들의 original copy라는 가설은 성서의 형성사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James Barr, *Fundamentalism* (1977), 294: “On modern and historical modes of understanding the Bible, ... it is no longer possible to fix upon a moment when scripture, or any one book of scripture, was “originally given,” a moment therefore to which inspiration could be uniquely attached. And this means, on the other hand, that there is no single unique form of words which could be counted as the one inspired text. If inspiration is to be thought of at all, it has to extend to sources used, to previous drafts, in some degree to variant texts, in some degree to books and sections of books which in the end have not been counted as within the canon of holy scripture, in some degree to translations of the original texts, and in some degree to post-biblical tradition, since not only the preservation but also the very formation of the text is in considerable measure a work of post-biblical traditionalists.”